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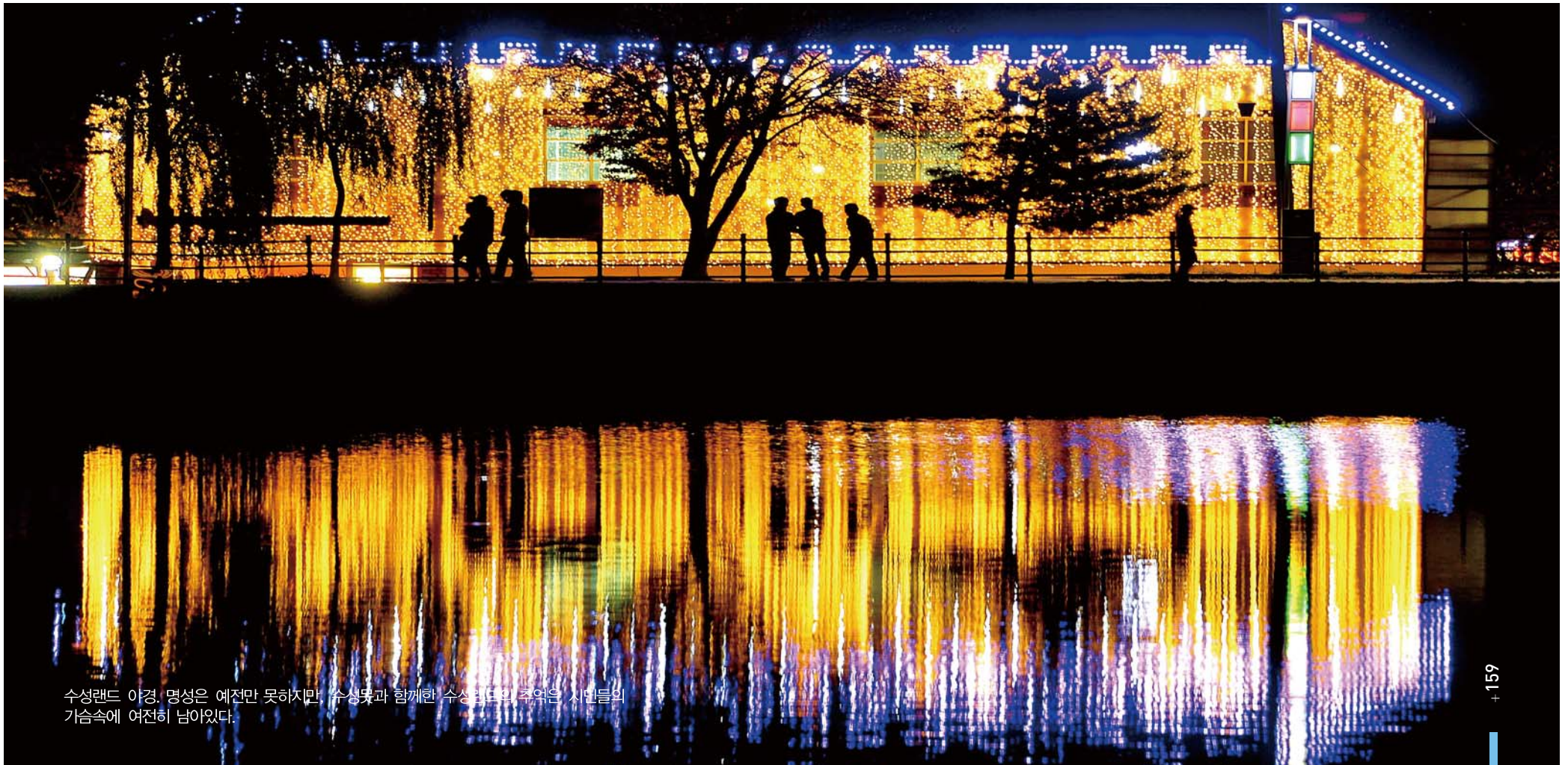


개장 초기 대구지역 최고의 놀이공원 옛 명성은 잃었지만 추억만은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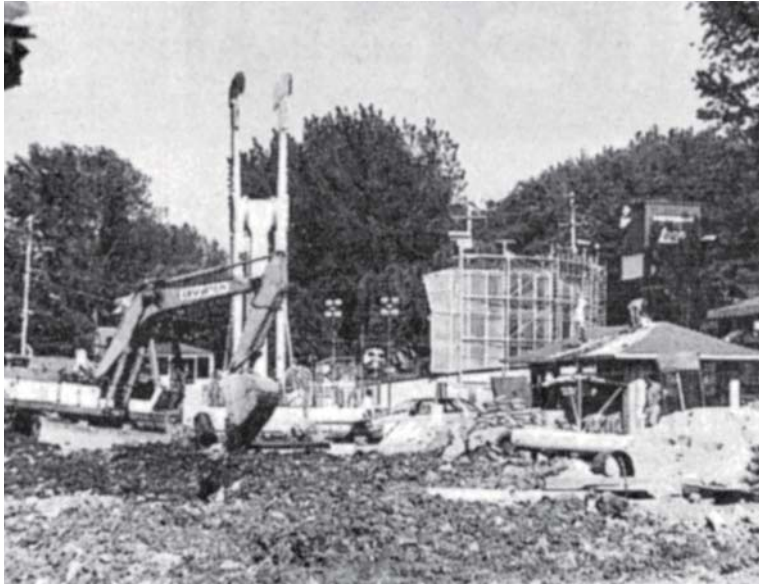
#1. 1993년 개장한 놀이공원

수성유원지 서편의 수성랜드(현 아르떼 수성랜드)는 1993년 7월9일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35-5번지 일원 2만303㎡ 부지 위에 세워진 놀이공원이다. 개장 당시 각종 놀이시설을 갖춰 가족이나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수성랜드는 2013년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방문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연간 20만명 내외가 찾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성랜드 야경. 명성은 예전만 못하지만 수성못과 함께한 수성랜드의 추억은 시민들의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수성랜드 조성 당시 모습. 1993년 수성못 서편에 개장한 수성랜드는 개장 당시 대구 지역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다.

2012년 '아르페 수성랜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성랜드' 라는 기존 이미지가 워낙 강해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구시민은 거의 볼 수 없다. 2015년 현재 회전목마, 꼬마기차 등 유아용 놀이기구 5종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바이킹 등 일반용 놀이기구 3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험교실과 4D 영상물을 상영하는 4D존, 조명으로 꾸며진 정원인 스위트가든, 테마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소규모 물놀이장을 열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2. 너무나 짧았던 전성기

현재 수성랜드는 수성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지만 개



개장 초기 수성랜드는 휴일이면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 초기의 북적거림에 비하면 다소 조용한 편이다.

1998년 7월 수성랜드 개장 당시만 해도 도심 놀이공원으로는 수성랜드가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76년 냉천자연원으로 문을 연 지금의 힐크레스트(옛 허브힐즈, 달성군 가창면)에도 놀이기구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거리가 멀었고, 동구의 동춘유원지 또한 수성랜드보다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주말마다 수성랜드를 찾은 인파로 놀이공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찾았는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 수성랜드 주변의 주차 관련 문제가 언론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수성랜드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95년 3월28일 대



수성랜드의 새 놀이기구를 소개한 1996년 7월18일자 영남일보 기사.

구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우방랜드(현 이월드)가 개장하면서 도심 최고의 놀이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겼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우방랜드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당시 대구지역 최고 건설사 중 한 곳이었던 우방은 우방랜드와 우방타워(현 88타워)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수성랜드를 찾는 고객들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수성랜드는 1996년 '디스커버리' '점퍼 앤드 스마일' '크레이지 댄스' 등의 새로운 놀이기구를 들여오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한 번 지나간 전성기의 영광은 되돌리기 역부족이었다.

#3. 수성못과 함께한 옛 추억의 공간

우방랜드가 개장하면서 최고의 도심 놀이공원 타이틀을 상실한 수성랜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 지면서, 기존 놀이공원의 인기는 예전만 못해졌다. 또한 기존 시설마

저 노후화되면서 수성랜드를 찾는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2011년 수성랜드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이 이뤄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14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물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체험동물농장, 도자기공방, 동화놀이터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성랜드 명성은 예전만 못하지만 수성못과 함께한 추억은 여전히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